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종광 소설가

대개의 작가는 출판기념회 여는 것에 시큰둥하다. 행사를 준비해 본 분은 알 테다. 바쁜 사람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든 지. 또 작가는 부조(祿)를 받는 일이 거의 없다. 오히려 우 주셔서 감사하다고 차비를 드려도 사일치 않다. 부패 정도는 불려야 한다. 가난한 것으로 소문난 작가는 출판기념회를 누가 열어 준다고 해도 기피할 수밖에 없다.

무슨 선거가 되었든, 선거를 앞두고 4.5,6개월 전에, 소리소문도 없이 즐기 차게 열리는 행사가 있다.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다. 마치 출판기념회를 열지 않으면 정치인이 아닌 것처럼 극성을 부린다. 정치인은 왜 그렇게 극성일까?

여러분이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첫 번째 이유. 정치자금을 걷기 위해서다. 출

진솔하지 않은 책들

판기념회는 정치자금법 제한을 받지 않는다. 금액 한도, 모금 액수, 횡수에 제한이 없다. 돈을 준다고 해도 안 갈 분도 있겠지만, 돈 내러 가야 할 분도 많은가 보다.

돈 때문이 아닌 정치인도 있을 테다. 아무리 모금 액수에 제한이 없었지만, 출판기념회로 거둬들일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겠는가. 돈밖에 없는 정치인에게는 돈은 별로 상관없는 문제일 것이다. 책을 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할 수도 있다.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책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지만 책 읽는 사람은 많지 않다. 독자는 거의 없지만 책을 쓴 사람에 대한 존경심은 크다. 책을 내야 인격을 갖춘, 지식을 겸비한, 소양이 높은, 한마디로 훌륭한 정치인이 된 듯하다. 즉 책은 정치인의 필수 스펙이나 아이템 혹은 보충수표로 자리 잡았다. 책도 안 낸 자는 정치인 자격 자체가 없어 보인다. 정치인이 책 내는 것을 꿀 같지 않게 보는 유권자도, 정작 책이 없으면, 책도 못 내는 무식쟁이 후보라고 깔볼 테다. 그래서 정치인은 울며 겨자 먹기로, 혹은 핑 먹고 알 먹기로 책을 내게 된다. 안 낼 수가 없으니 내고, 필수 스펙 쌓고 정치자

금도 얻는 것이다.

그런데 책은 정치인에게 부대령이 될 수 있다. 대개의 정치인은 책을 낼 때 당당히 밝힌다. 내가 썼다고. 그 책이 자서전이든 회고록이든 대담록이든, 혹은 정치 활동 자랑담이든 대중교양서든 수필집이든,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쓴 책이다. 진실로 자기가 다 쓴 분도 있다. 심지어 지난한 수정 작업도 스스로 하신 분도 있다. 그런 분은 '저자' 맞다.

이런 경우는 어떤가. 정치인은 인터뷰만 했다. 그 인터뷰를 바탕으로 어떤 작가가 원고를 써 주었다. 텔레비전에서 보셨다시피 말 되게 말하는 정치인이 드물다. 그 말 되지 않는 말을 읽을 수 있는 글로 변환하는 것은 청계천 복원 사업 못지않을 정도로 어렵다. 정치인이 자료(메모, 회의록, 신문기사 등등)만 주고 대필자가 다 썼다. 정치인이 에이포 용지 10장 원고를 주었는데 대필자가 100장 분량으로 늘려 썼다. 이렇게 정치인이 말이나 자료나 일부 원고를 제공했지만 대필자가 거의 다 쓴 책이 속하다.

하지만 이런 책들도 하나같이 '정치인 아무개 지음'으로 출간된다. 제1저자는 분명 대필자다. 정당한 책이라면 '아무

개 작가가 쓴 정치인 아무개 이야기'라는 식으로 나와야 한다. 정치인은 말할 테다. 내 이야기인데 뭐가 문제야! 그게 더 문제일 수 있다. 책에 나오는 내용이 그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내세울 만한 것은 엄정 자랑하고, 꺼림직한 것은 전혀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허위 기적'과 '자기모순'과 '위증'이 난무하는 것이다. 대필자의 교연영색을 '진짜'로 착각해 버리면 더욱 답이 없다.

저자 표기 문제와 책에 담긴 의심스러운 문장들만으로도, 검찰과 언론이 누구 내 파듯이 하면 도무지 안 걸릴 재간이었을 테다. 정치인에게서는 책이 계속이 돼 버린 셈이다. 정치인의 절대 스펙인 책을 안 낼 수는 없을 것이다. 책을 내니 뿌듯하고 돈도 생기고 좋기는 하다. 하지만 그 책이 언제 부대령이 돼서 날아올지 모른다.

작가로서 조언을 드리자면, 가장 후한 이 두렵지 않은 방법은, 진솔하게 자료를 제공하고 진솔하게 저자 표시를 하라는 것이다. 선거일 90일 이전에 무수히 쏟아지는 정치인의 책 중에 그나마 읽을 수 있는 책은, 진솔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책뿐이다.

社說

호남 출신 한상과 지역기업 네트워크 구축을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 출신 기업인들이 '한상' (韓商)의 위상과 역할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세계한상대회가 전남에서 열려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22일부터 사흘간 여수에서 개최되는 이 대회는 지난 2002년부터 매년 열리는 한민족 최대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행사다.

이번 여수 대회에는 6000여 명의 국내 외 경제인들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여수 대회는 특히 한상과 지역 기업들간 네트워크 구축 및 비즈니스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회 기간에 일자리 박람회도 열려 지역 청년들에게 해외 취업의 길을 열어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 거주 한국인 740만 명 가운데 호남 출신이 27%인 2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호남 한상의 기반은 탄탄하다. 광주시의회가 전남대 연구진에 의뢰해 최근 발간한 '호남 한상인 실태 조사'를 보면 호남 한상들은 향우회를 중심으로 해마다 '세계 호남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면서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에선 베이징·상하이 등 12개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런 만큼 호남 한상과 지역 기업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호남 한상인들도 설문 조사에서 요구한 '호남한상센터'를 설치하는 것이다.

전 세계 호남 한상인을 조직화하는 컨트롤타워로서 한상과 지역 기업 간 네트워크는 물론 호남 한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도 호남한상센터는 꼭 필요하다.

이 사업은 한상들에게만 맡겨둬선 안 된다. 자치단체와 지역 정치권이 호남 한상과 지역 기업을 긴밀하게 연결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광주시와 광주시의회가 조례를 제정해 호남한상센터 설립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문화예술 분야 수도권 쏠림 현상 시정돼야

문화 콘텐츠와 예술 부문 지원 사업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대안정치연대 최경환(광주 북구을)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화예술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콘진원의 지난해 공모 사업 608건 가운데 서울·경기 지역에서 484건(79.6%)이 선정됐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1184억 원 가운데 68%인 800억 원이 서울·경기에 집중됐다. 올해는 공모 사업의 수도권 선정 비율이 81%까지 치솟았다.

반면 광주·대구·충남·충북의 지난해 공모 사업 선정 비율은 건수 기준 2~3%에 그쳤고, 전남·대전 등 나머지 지자체는 1%에 머물렀다. 올해(8월 현재)도 광주와 대전에 3%씩 지원된 것 외에 대다수 비수도권 지자체의 콘텐츠 분야 지원 비중은 1%대에 불과하다.

문화예술위 공모 사업에서도 지방 소외는 심각하다. 지난해 총 2683건의 공모 사업 가운데 1929건(71.9%)이 서울·경기에 배당됐고, 전체 지원 금액 600억 원 가운데 61%인 370억 원이 두 지역에 집중됐다. 올해도 서울 53.3%, 경기 14.6% 등 68%가 수도권에 편중됐다. 광주·전북·충북·경남 등은 2%대, 전남·경북·충남 등은 1%대, 울산·제주는 1% 미만이다.

수도권과 광주·전남을 포함한 비수도권의 경제·문화적 격차는 수십 년간 이어져 고착화하고 있다. 수도권 집중을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시정하지 않는다면 지방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체첸 지역 문화예술·콘텐츠 산업을 성장시켜주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을 심화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할 것이다. 정부는 문화예술 지원 사업에서 지역 안배를 고려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수도권 쏠림 현상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종교칼럼

인연 중의 인연



정세완 원불교 농성교당 교무

를 벗어나 재앙이 닥친다"고 하셨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인격이 주변 인연 따라 물들어 간다.

원불교의 2대 종법사인 정산 종사는 "복 중에는 인연 복이 제일이고 인연 중에는 불연(佛緣)이 제일이다. 오복의 뿌리는 인연 복이니 부지런히 선근자와 친근하라"고 하였다. 부처님의 인연법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此有故彼有), 이것이 생하므로 저것이 생한다(此生故彼生)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此無故彼無) 이것이 멸하므로 저것이 멸한다(此滅故彼滅)"라고 하였다.

인연은 독자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반드시 인연 연을 만나야 과를 형성하는 것이다.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씨앗은 발이라는 연을 만나야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

왜 정산종사는 인연 중에서 불연(부처님 인연)이 제일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부처님 인연은 상에 집착함이 없는 인연이다. 무엇을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맺는 인연이다. 무엇을 바라고 인연을 맺으면, 내가 바라는 것이 그 사람에게 없을

때 그 인연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부처님 인연은 상에 집착하지 않는 공에 바탕한 인연이라고 한다.

부모가 자식에게 무엇을 바라고 베풀지 않듯, 부처님은 중생들에게 주기만 하는 인연이다. 주면서도 바라지 않고 주는 것이다. 이 천지가 모든 생명을 살리는 비를 내리고 햇빛을 비쳐주면서 비쳐준다는 마음이 없이 주는 것이다. 만약 천지가 무엇을 바라고 햇빛을 비추고 비를 준다면 이 세상의 생명들은 온전한 생명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 이처럼 부처님과 과의 인연은 천지 같은 관계이다. 무심하면서 상없이 주는 인연 불연은 인연과(因緣果)를 뛰어넘는 만남이 된다.

친한 벗의 아버님은 나이가 칠십 중반이시다. 경향 공무원으로 정년을 하셨는데 나이를 먹으니 솔친구가 정말 진정한 친구라고 한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 젊은 자녀들에게 솔친구를 사귀 때는 주의해서 사귀라고들 말을 하는데 외외의 말씀이었다.

그 이유를 물으니 나이를 먹으니 술을 사준다고 해도 친구들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죽마고우 아니면 함께 술을 마시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공자님

께서는 술을 마시는 사람 중에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했다. 한 부류는 술을 먹으면 남의 세정을 잘 알아주고, 이해심이 생겨나 상대의 허물을 잘 용화하는 사람이고, 또 한 부류는 술을 마시며 남에게 시비를 걸어 싸움으로 번지고 주위를 소란하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셨다. 전자는 술을 마셔도 되는 사람이고 후자는 술을 끊어야 하는 부류라고 하셨다.

우리는 흔히들 솔친구는 나쁘다고 말하는데, 술에 대한 인연은 술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술을 대하는 우리에게 마음에 있음을 실감하게 하는 말씀이다.

불연은 인생의 짧은 만남이더라도 영생의 인연으로 이어간다. 시공을 초월한 만남이 된다. 영생의 인연이 되고 영생의 만남이 되려면 어떤 필요충분조건이 충족되어야 할까?

죽은 무언전에서 그 답을 찾는다. "덕 불고필유린(德不孤必有鄰) 적선지가 필유여경(積善之家必有余慶)" 덕이 있으면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으며, 덕을 쌓은 집안에는 경사가 넘친다. 기회가 있을 때 인연을 많이 맺어 두고 복을 지을 수 있을 때 많이 짓고 불 일이다.

기 고

광주시, 보험 범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김양식 손해보험협회 서부(호남총청) 지역본부장

위, 자동차 사고율 전국 1위, 한방병원 수 전국 1위, 요양병원 증가율 전국 1위, 인구 대비 설계사 비율 1위 등 여러 가지 지표가 이와 상당 부분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형님 문화'로 대표되는 온정적인 지역 정서도 크게 한몫하고 있다.

앞서 적시한 여러 지표 중 광주시에서 개인하여 영업중인 한방병원의 압도적 숫자도 문제지만 최근에는 급격하게 증가 추세에 있는 요양병원도 문제다. 광주시의 요양병원 개원은 2014년 41곳에서 2018년 65곳, 전남 지역은 62곳에서 87곳으로 5년 사이 광주·전남 지역의 요양병원이 각각 59%, 4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 14.0%, 인천 22.4%, 대전 2.0%, 경기 24.3% 등 전국 평균 19.4% 증가율과 비교해 볼 때 광주·전남 지역은 과도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요양병원에서 보험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요양병원은 암 환자, 치매 환자 등 대부분 중증 환자가 입원해 치료와 더불어 돌봄 서비스를 받는 의료기관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생애 대한 동정 및 연민의 정이 느껴지는 환자들이 대부분이어서 국민건강보험 또는

민건강보험에서 관리가 좀 느슨하고, 검경 수사기관도 수사에 다소 소극적이고 부담을 갖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점을 일부 몰지각한 의료기관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과거 보험 범죄는 개인의 생계형 범죄였다면 최근에는 전문 브로커 및 병원 관계자, 보험 설계사 등이 합세해 지능화·조직화·전문화 돼 가는 추세다.

보험 범죄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사가 아닌 간호사와 간호 조무사가 고주파 온열 압 치료를 한다든가, 실제 치료를 시행하지 않고 치료 횡수를 부풀린 경우나 인가받지 않은 병상을 운영한 다든지, 진료 기록을 조작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또한 의료 실비 보험 가입자를 유지하기 위해 병원마다 여러 환자를 유인하거나, 앞선 브로커 조직을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비급여 진료비를 타내기 위해 불법 형태의 양·한방 협진을 하는 등 그 수법도 참으로 다양하다.

보험 범죄는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다.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의 불법적인 부당 청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국

민건강보험 및 민영보험의 재정이 악화되어 보험료 인상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데, 이럴 경우 선량한 대다수 국민이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에 의하면 이러한 보험 범죄로 인해 한 가구당 23만 원 정도 보험료를 더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논어 학이(學而)편에 '본립도생(本立道生)이라는 사자성이 있다. '기본이 서면 길 또한 자연스럽게 생긴다'라는 뜻이다. 광주시는 '거룩한 민주화의 성지'라는 명예로운 도시다.

이에 걸맞게 광주는 무너진 기본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 보험 범죄를 이대로 계속 방치해 둘 수 없지 않은가. 이제 광주시는광주지방검찰청·광주지방경찰청 등과 협업을 통해 더욱 더 강력하고 철저한 보험 범죄자 색출 및 처벌에 적극 나서야 한다.

광주시민들 또한 온정적인 지역 정서에서 편승하여 쉽게 보험 범죄 유혹에 빠져 들고 있는데 '민주화의 성지'에 걸맞은 올바른 시민 의식을 갖춰 광주가 더 이상 '보험 범죄 온상'이라는 불명예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無等鼓

지난 15일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열린 한국과 북한의 2022카타르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남북 교류의 물꼬는커녕 무관중, 무중계, 무특점의 '3무(無)' 경기로 진행돼 실망이 컸다. 외신들도 '팅빈 관중석 앞에서 열린 기이한 경기' '가장 비밀스러운 월드컵 예선' '기괴한 경기로 결과는 부차적이었다'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중계방송이 없는 '깜깜이 경기'였으니 충분히 그럴 만하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무관중 경기였다는 점이다. 언론은 북한이 패배할 경우 우려되는 '3무' 축구를 소개하며 중계방송을 감안했

했다. 북한은 150만 달러(약18억 원)에 달하는 중계권료를 요구했으나 KBS와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높은 가격이지만 시청률이 보장된 남북 대결에 프리미엄 경기였다는 점, 여기에 북한이 TV중계 기술이나 송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용을 더 불렀다는 점 등을 생각하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국내에서 열린 A매치도 월드컵 예선이던 중계권료가 10억 원까지 올라간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북한은한국 응원단의 평양 방문을 불허한 상황에서 대규모 관중을 사회적인 총력을 감안했

했던 것일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무관중 경기 또한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어찌 선수단을 통해 들어온 DVD 영상은 상태가 좋지 않아 평양원정 경기는 영원히 '깜깜이'로 남을 것 같다.

남북은 H조에서 나란히 1,2위를 달리고 있다. 최종 예선에 동반 진출하고 같은 조에 편성된다면 평양 예선은 다시 열릴 수 있다. '3무 경기'가 반복되지 않아야 할 텐데, 그뿐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유재관 편집1부장 jkyou@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기사·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649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220-0632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220-0663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220-0652	220-0633	디자인실	220-0536
220-0642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